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ACN 특별보고서

ACN · 가톨릭평화신문 공동 기획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명: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우/간/다 아프리카의 진주

고통받는 교회를 도움시다

우간다 교회

사라진 신학생들

“2003년 우리 교구에서 신학생 41명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중 11명의 행방은 아직도 모릅니다.”

난민들, 위기에 처한 연대

INTERVIEW

주님이 부르신 자리

토속 신앙과

예수님의 기적

and... 순교자의 빛



고통받는 교회를 돕시다 - 우간다 교회

ACN이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바깥세상에서 보는 아프리카 대륙은 대개 불행과 궁핍함, 참혹함의 땅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막상 아프리카를 가보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쁨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언어, 기후와 생활 관습으로 풍요로운 아프리카는 질병과 저개발 지역 따위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되곤 합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와 가톨릭평화신문의 공동 기획 캠페인 '고통받는 교회를 돕시다'의 취재진은 이러한 편견을 뛰어넘는 멋진 세상을 우간다 교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우간다가 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시다.

한국 면적의 약 두 배 크기인 우간다에는 4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84%가 그리스도인(가톨릭 42%, 개신교 42%)이며 12%가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토속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분명 풍족한 대지가 주는 많은 선물을 누리고 있지만,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며칠을 지낸 취재진은 단지 '가난'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우간다의 어두운 모습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노동 착취, 기아, 내전,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황은 더 악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간다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사목의 끈을 놓을 수 없었으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노력은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증가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간다 북부 지역은 남수단 내전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간다 서부 지역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부족 사회에서 별이는 주술 의식 때문에 한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에 있는 나무공고 성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순교 성인 22위가 탄생한 곳으로 우간다 가톨릭교회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가난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간다는 가난하며, 가난과 연결된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ACN은 우간다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주교들을 도와서 교구 및 수도 성소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해 ACN 설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앤 크리스틴 키자 수녀(우간다 티엠티안 속죄의 마리아 성심 수녀회 총원장)

사라진 신학생들



“2003년 우리 교구에서 신학생 41명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중 11명의 행방은 아직도 모릅니다.”

우간다 주교회의와의 인터뷰 당시 굴루 대교구장 존 오다마 대주교가 밝힌 사실입니다. 오다마 대주교는 취재진을 늘 따뜻한 눈길과 밝은 미소로 맞이했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움이 그 따뜻한 모습 뒤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금도 몹시 슬픔니다. 아직 행방이 묘연한 신학생들 때문입니다. 살아 있을까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이들이 가엽습니다.”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는 1987년에 ‘신의 저항군’(LRA)을 세운 뒤 현재까지 25,000명의 어린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의 무차별 학살로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1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조셉 코니는 성노예, 강간, 인신매매, 살인 등 수많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때문에 수배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로는 그의 끔찍한 행적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LRA는 납치한 아이들을 소

년병으로 훈련하고 앞서 언급한 온갖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가족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LRA는 아동 납치와 노예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목표나 사명도 없습니다. 조셉 코니는 2008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리스트에 올라서 국제형법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현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LRA는 우간다를 비롯한 중앙아프리카의 주민들을 여전히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마 대주교는 조셉 코니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저는 코니에게 신학생들을 데리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잡혀 있다면 풀려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도 코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코니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그를 만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다마 대주교는 고통과 내적 갈등 속에서

도 LRA로 인해 붕괴된 수많은 가정의 화해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평화를 위해 북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오다마 대주교는 2008년에 조셉 코니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코니, 당신의 생명과 다른 이의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납수단과 우간다 사람들의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입니다. 절대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가운 침묵 속에서도 우간다 교회는 가장 필요한 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ACN의 지원에 힘입어 사제 성소자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연민과 사랑으로 폭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난민들, 위기에 처한 연대



취재진은 주일을 맞아 살레시오회의 라자르 아라수 신부와 함께 7시간 넘게 진흙탕 수렁길을 달렸습니다. 밀림 속에서 간간이 초가집이 보였는데, 30년 전에는 난민 캠프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캠프라는 말 대신 '정착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계곡에 정착해 지역 주민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전 남수단 난민 36,000명이 우간다 북부 람위구에서 난민들을 위해 세운 팔라벡 정착지로 왔습니다. 아라수 신부는 "이 지역 주민들은 난민을 진심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돕는 것이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우간다 정부의 모습은 지역 주민의 너그러움이나 열린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아



"다 잃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라수 신부는 "우간다 정부는 난민에게 어떤 구호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많은 비정부기구에서 물품을 보내지만, 가톨릭교회는 그들이 줄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사목적, 영성적 지원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변 캠프에서 난민들이 "흘러넘쳐" 오는 바람에 팔라벡 정착지의 난민 숫자가 36,000명에서 120만 명으로 급증했고,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난민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취재진은 난민촌에서 아이들이 큰 돌을 부수어 작은 돌로 만들어 건설 현장에 파는 것을 보았고, 또 많은 아이가 흙바닥에 앉아 울거나 풀을 잡아 뜯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에게 가장 잔인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성을 잃고 좌절하고 화를 내고 엇나가기 마련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최소한의 생필품을 제공하지만, 이곳에는 학교도 없고 어떤 교육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식량마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라수 신부는 텐트를 치고 있는 한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는 오래 못 갑니다.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대

체 언제까지 식량을 배급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난민을 위한 곳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이도 있지만, 일거리가 없는 어른들의 눈에도 이곳 아이들처럼 피폐함이 역력했습니다.

난민촌에 사는 가정 대부분은 수입이 없어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고 숲에서 뭐라도 주워와서 삶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암울한 환경과 달리 어느 한 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나 무의 시원한 그늘에 임시로 만든 제대를 앞에 두고 난민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유아 세례식도 거행되었습니다. 난민 생활을 하며 본당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부모들은 이날을 위해 2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회중 전체가 미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전례가 얼마나 생기고 몸으로 다가오는 체험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주일 오후 굴루대교구 총대리주교를 만났는데, 그는 난민 정착지에 살고 있는 남수단 형제들에게 "교회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라며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고통받는 교회를 도우시다 취재진은 2주 동안 우간다의 신학교 다섯 군데를 방문해 사제가 되기 위해 놀라운 의지와 믿음을 보여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캄팔라 성 마리아 신학교의 데이비드 오니에르토 부제와의 인터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제의 꿈을 키울 수 있었나요?

A.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배운 것은 성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부르심을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커서 성소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성소는 대개 부모를 통하는데, 이때 부모는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매 주일 성당에 갈 때마다 신부님을 올려보면서 감동했습니다. 모두 참 잘생기고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복사를 서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먼저 사제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제

게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 성소는 타인으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형제들이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은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5남 7녀 중 여섯째인데, 저보다 큰 형과 누나들이 먼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3년 정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 후 소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신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다. 형제 세 명이 동시에 학교에 가야 하는 바람에 가난한 우리 가족은 학비를 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저만 신학교에 갔는데, 부모님은 제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갔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를 먼저 공부시키는 것은 빨리 취직하고 돈을 벌어 어린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형과 누나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면서 은퇴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는 기말고사를 치르기도 전에 학비를 내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학장 신부님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저를 다시 불러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게 해 주셨고, 다행히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학비를 구하지 못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일 년 뒤 농작물을 수확해서 학비 대신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학장님이 받아주신 덕분에 저는 3학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반이 되어 대신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학장 신부님께서 사제 성소를 키워온 제 모습을 보시고는 공부를 계속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비 걱정이 바로 시험에 통과해 교구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의 매 학기 등록금은 50만 실링(약 15만 원)인데, 제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신학교에 들어간 많은 학생은 학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가정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구는 평신도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내라고 하면 신학교에 남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성소자가 없어진다면 미래의 사제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구에서 학비를 마련해 모든 신학생에게 50만 실링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교통비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난 학우들도 있습니다.

Q.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소를 포기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나요?

A. 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문제는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휴학하고 부모님의 농사를 도울 때 저는 돈이 생기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이웃이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결혼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Q. 형제가 12명인데, 그중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A. 제 형과 누나가 간호사인데, 누나는 결혼에 실패하고 술에 의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결혼한 부인의 집안이 더 가난해서 오히려 처가가 형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형은 우리 가족이 아닌 처가를 돕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제가 부제가 되자 부제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게 돈을 달라고 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Q.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방학이 되면 집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차비를 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매트리스와 집을 짊어지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결국 외상으로 차를 얻어탔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제 집을 다 맡겨놓고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닭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아 차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좌절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위궤양이 생기기도 했는데, 걱정이 지나쳐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신학생들이 겪는 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A. 힘든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3년, 2006년, 2009년, 2015년, 그리고 대신 학교를 입학한 다음에도요. 방학이 끝나고 이를 늦게 학교로 돌아갔는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님이 10만 실링(약 3만 원)을 주셔서 차비

를 내고 학용품과 비누 등을 샀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학기를 견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했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니에르토 부제는 2018년 7월 6일, 마침내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성 미카엘 카부이리 성당 주임 아심웨 신부가 마을에서 수거해온 주술의식 용품을(옆면에서 이어집니다)



토속 신앙과 예수님의 기적

취재진은 카세세교구에서 교구장인 아퀴리노 프랜시스 키비라 주교와 함께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키비라 주교는 창문을 열어 그들에게 축복을 전했고, 사람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 미카엘 카부이리 성당에 들어서자 천 명이 넘는 신자들이 꽃과 음악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취재진은 조용히 아무런 소개 절차 없이 제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성체 조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을 보며 과거의 생기 잃은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2000년에만 해도 성 미카엘 카부이리 본당에는 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했으며,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주일 미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수가 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키비라 주교는 “많은 주민이 토속 신앙과 주술을 믿는 바람에 제가 아심웨 신부를 2년 전 이 본당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친다고 동물을 죽이고, 닭을 잡아서 저주를 퍼부으며 이웃집에 닭목이나 닭발을 던졌습니다. 환경이 이러하니 자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키비라 주교는 성 미카엘 카부이리 본당으로 아심웨 신부를 파견했고, 그는 감실에 성체를 모셨습니다. 또한, 카세세교구는 자비의 희년 동안 이곳을 하느님의 자비 순례 성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자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술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들은 전래동화 정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간다 국경 인근의 음폰웨 마을에는 토속 신앙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큼니다.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이 마을은 다양한 부족과 문화와 전통이 만나는 곳입니다.

키비라 주교는 토속 신앙의 상당 부분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왔으며, 콩고인들이 주술 의식을 많이 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그는 “아심웨 신부가 2년 전 이곳에 온 이후로 자살하는 이도 없고 주술의 식 용품들을 집으로 던지는 일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은 미사와 성체조배를 통해 얻은 교회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이 지역에서 폭력은 일상과도 같습니다. 2017년 7월 18일,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콩고의 한 무장 단체에 의해 많은 이들이 학살되었고 사제 두 명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인종적,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우간다로 난민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 미카엘 카부이리 본당은 하느님의 자비 순례 성당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의 피신처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쉴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차별과 같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체 조배 후 키비라 주교는 취재진과 함께 깊은 산속에 있는 다른 본당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돌며 성체 행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키비라 주교는 조용히 발길을 옮기며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성체가 음폰웨 마을의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것은 기적이나 마한가지인데, 우리는 오늘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빛

박해와 순교는 한국의 가톨릭 신앙의 뿌리입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진은 우간다 교회를 방문하며 순교자의 피로 믿음의 땅이 비옥하게 된 두 나라의 교회가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간다의 순교자 성지인 나무공고에 도착하자 평화와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나무공고 성지는 규모가 아주 크고 전통 나무집 모양으로 건축되었는데, 국립 공원 처럼 보이는 넓은 숲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 캄팔라의 복잡한 시내에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들판과 나무는 도심 속 답답함에서 벗어나 수 있는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1877년과 1879년 사이에 우간다 왕 무티사 1세의 초대를 받아 성공회와 가톨릭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과 순교자 중에는 궁전에서 일하던 시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885년 11월 15일, 무티사 1세의 아들인 부간다 왕국의 므왕가 2세 재임 때 우간다의 첫 순교자가 탄생했습니다. 성 조셉 무카사 말리쿠텐베는 당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해닝턴 주교의 암살을 비판했고 정치적, 종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므왕가 2세는 자신의 측근과 원로의 말을 듣고 성 조셉 무카사 말리쿠텐베의 처형을 명했습니다.

그 후 우간다의 가톨릭 순교자 24명이 시성되었고, 시복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박해를 받은 성공회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나무공고는 ‘끌고가다’는 뜻인데, 22명의 순교자들은 먼저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팔다리가 잘린 채 끌려가면서 창을 맞고서도 산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처형 과정에서 아무도 배교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신앙 증언에 감동한 사형 집행관은 회개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무공고 성지를 둘러본 뒤 성공회 부지로 건너가서 순교자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먼저 가이드의 간단한 소개를 듣고 전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순교의 현상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그려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그 처절함이 심해지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30분 동안 순교자들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그들이 고문받고 죽임당한 바로 그 장소를 거닐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박해와 순교가 지구

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3년 우간다를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빛이 특별히 밝게 비춘 땅입니다. 성 가롤로 르왕가와 그 동료들 사료잡은 불 때문에 나무공고를 덮던 어두움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빛납니다. 이 빛이 아프리카를 계속 밝히도록 하소서!”

우리는 오늘날 우간다 가톨릭교회의 믿음을 보며, 그 빛이 더욱 밝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무공고 성지와 순교자 박물관

